# 전북에서 미국 고교생 한국문화 체험

## 美 국무부 선정 17명 6주간 17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며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받아

미 국무부 파견 고교생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전북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NSLI-Y 프로그램이 지난 3일 전주기전여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17명으로 구성된 미국 고교생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6주간 머무를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에서 선발하여 파견한 학생들로 미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NSLI-Y(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프로그램의 장학금 수혜자들이다.

NSLI-Y는 미국 정부의 주요언어교육 프로그램(NSLI)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 국적 학생들이 주요 언어 사용 국가에 파견돼 현장에서 해당 언어와 생활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도 이 프로그램의 해당 언어다.

이 중 한국어 교육은 2014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했으며, 지난 4월에는 3차 년도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장을 전주기전여고 등으로 결정하고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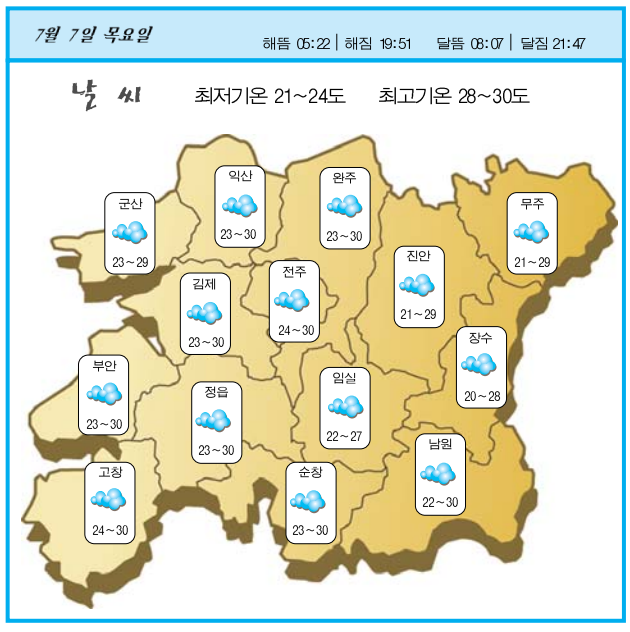
또한 홈스테이를 하게 될 17가정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마쳤다.

지난 4일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미 고교생들은 8월 16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전원 도민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며, 총 12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100시간에 이르는 체험형 한국문화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전주의 다양한 명소와 볼거리, 인물 등을 직접 만나보는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이 매주 1회 진행되며, 전주 KBS 콘서트 관람, 전북현대FC 축구경기 관람 등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한다.

이들을 인솔하고 온 현지생활 책임자 잭 맥클라우드씨는 "지난 2년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전주를 17명의 학생들과 함께 찾게 되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며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크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게 되는 전주가 학생들에겐 한국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주시, 도시 옛모습 사진 체계적 보존 · 관리

## 총 3억원 투입 1967년~2007년까지 40년간 주요 항공사진 영상지도로 제작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

전주시가 도시의 옛 모습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항공사진을 활용한 영상지도 구축에 나선다.

전주시는 총 3억원을 투입해 지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의 주요 항공사진을 영상지도로 제작,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시계열(時系列) 정사영상 지도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과거 항공사진의 영구보존 및 관리체계를 위한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한 공간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연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정사영상'은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 필름을 스캐닝해 영상정보와 항공삼각측량, 색상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정사영상을 하나의 통판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시는 연도별로 전주시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전주시가 소유한 6개년도 과거 항공사진과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관중인 8개년도 항공사진 등 지난 1967년부터 2007년 사이 총 14개년도이며, 시는 이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전주 전역에 대한 연도별 정사영상 지도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이번에 구축할 14개년 정사영상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8개년 정사영상 등 총 22개년에 대한 디지털 정사영상을 보유하게 된다.

**덕진공원 수 놓는 연꽃 군락** 6일 전주시 덕진공원 호수에 연꽃이 꽃봉우리를 터트려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 정사영상은 공간정보시스템인 항공사진조회시스템에 탑재돼 지적도와 도시계획 등 각종 공간정보와 융합, 소송과 도로미불용지, 무허가 건축물 판독, 생태복원 등 모든 행정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항공사진에 대한 DB구축이 완료되면 도시의 옛 모습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양한 행정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민원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상지도 제작은 행정·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역사 자료로 교육, 출판, 박물관 제공 등 온 국민이 활용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도교육청, 방학 과제 등 학교 선택권 보장

전북도교육청이 획일적인 '방학과제 금지'와 '자율학습' 등의 선택권 보장을 각급학교에 강조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획일적인 방학 과제는 지양하고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중심 과제를 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방학 기간 자율학습이나 0교시 운영 등은 참가 학생과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지도와 종합감사 의뢰 행정 재정적 제재 등 단계별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방과 후 학교는 수요 조사를 한 뒤 운영하고 인근 학교나 지역사회 시설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다.

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등하교, 급식, 생활 등에서 안전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운영은 선수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야외 훈련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노동계 · 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진척 없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50분께까지 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전날에 이어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유지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임위는 6일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임위는 10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6일에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에 회의를 추가로 잡아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최임위 전체위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중대결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주기자